

## 보성무역 ‘신제품 3종’ 선보여…성게알젓 튜브·해각포·통조림

김윤림기자 [bestman@munhwa.com](mailto:bestman@munhwa.com)

국내 최대 성게 식품가공 전문회사인 (주)보성무역(대표 윤일훈·사진)이 튜브세트 등 신제품 3종을 출시하고 본격 마케팅에 들어갔다.

보성무역은 ‘성게알젓 100g 튜브세트’ ‘해각포 55g 선물세트’ ‘통조림 90g 선물세트’를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성게알젓 튜브는 휴대와 보관이 쉽고 조리 시에도 간편한 점, 해각포는 게살 결이 그대로 살아 있어 씹는 맛에 바다 향까지 물씬 느낄 수 있는 점, 통조림 세트는 유통기한이 길고(3년) 상온 보관이 가능해 야외에서도 먹기 좋은 점 등이 각각 장점이라고 보성무역은 설명했다.

보성무역 관계자는 “우수한 가공시설과 노하우로 생성게알, 성게알젓, 성게알통조림, 냉동성게알 등의 제품을 일본에 수출해 호평을 받고 있다”며 “오직 국내산 성게만을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3월부터 우수한 맛을 선보이겠다는 취지로 국내 시판에 들어간 보성무역은 앞서 1988년 5월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에 국내 최대 성게 가공공장을 준공했다. 1998년에는 1200만 달러어치를 일본에 수출하며 생산 규모를 확장했으며, 2006년 6월에는 전국 이마트 107개 매장에 생성게알, 성게알젓, 냉동성게알 공급에 착수했다. 2008년에는 홈플러스 전국 90여 개 매장에도 냉동성게알 공급을 시작했다. 2016년에는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전신)으로부터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mailto:bestman@munhwa.com)